

2020학년도 2학년 안내사항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교에 입학한지 어느새 1년이 지나 우리 아이들이 의젓한 2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떨림과 기대 속에서 저도 학생들을 위해 성심껏 지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1년 동안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락처

☎ 학교 : 063) 643 - 5753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교나 담임교사 휴대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림장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2. 안내드립니다.

★ 개학날은 돌봄 및 급식 실시하고, 방과후는 개학 첫 주 추첨 후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 하교시간안내

요 일	하교 시간	돌봄
월, 금	13:00	정규수업 후 돌봄교실을 운영합니다. 돌봄은 17:00까지 가능합니다.
수	13:30	
화, 목	14:10	

★ 개인 하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에 미리 이야기해주세요.

★ 학교로 보내는 모든 아이들 물건에는 이름을 써서 보내주세요.

★ 2학년 교육활동 관련한 사진 및 안내사항은 밴드 개설후에 별도 안내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양식을 학교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해서 1주일 전에 제출바랍니다. 해외여행 시에는 출입국증명서 또는 전자항공권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3. 학교는 배움의 장입니다.

★ 교과서안내 : 국어, 국어활동, 수학, 수학익힘, 봄, 여름, 안전한 생활

- 교과서는 학교에 보관(숙제가 있을 시만 집에 가져가기)

※ 국어활동, 수학익힘은 원칙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자기주도학습용으로 제작되었으나 과제 및 학습성취정도 파악을 위하여 학교에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 과제 및 준비물 - 알림장 및 학급 홈페이지 참조

4. 부탁드립니다~

- ★ 8:50분까지 등교(늦거나 결석시에는 문자나 전화주세요)
- ★ 먹여서는 안 되는 음식 등 자녀의 건강상의 문제 중 담임교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알림장 확인 꼬~옥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성실' 의 모델이 되십시오.
- ★ 숙제는 스스로 하는 습관을 갖도록 부모님이 지도해주세요.
- ★ 아이들 스스로 책가방을 정리하도록 지도해주세요.
- ★ 안내장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시고, 학교로 회신이 필요한 경우 되도록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학급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세요.
(자세한 알림장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옷차림 단정히, 편한 복장, 실내화 청결유지

5. 개인준비물

- 학생 스스로 자기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습관을 기르고자 하니 학년 초에 개인준비물을 반드시 구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름을 꼭 써 주세요.
- ★ 책꽂이, 바구니 - 1학년 때 사용하던 것 보내주세요.
- ★ 필통 - 천으로 된 것 권장, 게임기능이 있거나 플라스틱 재질은 학습에 방해가 됩니다.
- ★ 연필(초등학교 저학년은 연필을 잡는 기본 자세부터 배우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연필을 주로 사용할 예정이니, 필통에 일반 연필 3자루 정도, 집에서 미리 깎아오고 칼, 샤프는 가지고 다니지 않음)
- ★ 지우개 - 모양(캐릭터)보다는 잘 지워지는 말랑한 것으로 준비하세요.
- ★ 공책 - 종합장, 저학년용 일기장, 알림장, 받아쓰기(줄공책), 국어 10칸
- ★ 스케치북(8절), 크레파스, 색연필, 싸인펜 - 학교 사물함에 보관
- ★ 실내화 - 이름을 써서 보내주세요.
- ★ 칫솔(2개- 칫솔의 상태를 점검하여 수시 교체), 치약, 손잡이 있는 양치컵
- ★ 딱풀, 가위, 자, 클리어화일(A4, 40P)
- ★ 나머지 준비물은 학교에서 준비하거나 차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마세요.

6. 당부 드리는 말씀

- ★ 자녀에게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건의사항이 있을시 담임과 먼저 이야기합니다.
- ★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 칭찬 받은 날은 가방 풀기도 전에 먼저 이야기하지만, 혼난 일은 꼭 다른 아이들 또는 다른 엄마들 통해 듣게 되지요. 여기서부터 기분이 나빠집니다. 제일 중요한 왜 혼났는지, 왜 감정이 상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 ★ 학교와 선생님을 신뢰하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내 자녀만 생각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함께 부모된 입장으로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하다고 한번만 더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바른 교육관으로 일관되게 지도해주세요.
- ★ 우리 2학년 어린이들이 바른 기본 생활 습관과 기초 학습 능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